

- 국제 우호교류도시 중국 단둥시 진흥구 방문 -
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



광주광역시 서구
[총 무 과]

목 차

I. 방 문 개 요

II. 방 문 성 과

III. 일정별 활동사항

VI. 참 고 자 료 (별첨)

I

방문개요

○ 일 시 : 2015. 9. 5(토) ~ 9. 9(수) - 4박 5일

○ 방 문 지 : 중국 요녕성 단둥시 진흥구, 하얼빈, 심양

○ 방문목적

- 진흥구측 초청에 따른 답방 및 구체적인 교류방안 협의
-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에게 광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

○ 방 문 단 : 임우진 서구청장 외 8인

연번	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고
1	공 무 원	구 청	구 청 장	임우진	
2	"	"	복지환경국장	김은규	
3	"	"	총무계장	조진옥	의전
4	"	"	직 원	강성철	기록
5	"	"	직 원	차영화	통역
6	주민대표	의 회	의 장	황현택	
7	"	"	운영위원장	정순애	
8	"	"	기획총무위원장	백종한	
9	공 무 원	"	직 원	정원근	수행

○ 소 요 액 : 19,787천원

○ 방문연혁

- 2012년 6월 : 의향서 체결(진복무 구장 등 13명 광주 방문)
- 2014년 9월 : 진복무 구장 우리구 방문(선진농업기술 및 영농기계 투자 관심)
- 2015년 9월 : 임우진 서구청장 등 9인 진흥구 방문(교류방안 4개항 제안)

II

진흥구 방문의 성과

○ 단동시 진흥구와 실질적인 교류방안 협의 (2015. 9. 7. 13:20. 진흥구청)

- ① 청소년 문화교류 희망(매년 20명선, 방학 이용, 격년제 상호방문)
- ② 민간인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(관광, 문화, 농업)
- ③ 공무원 견학 상호 협력(교통편의 제공, 숙박시설 소개 등)
- ④ 양 구청 간부 공무원 교차 교류 확인(진흥구 서기와 구장 등 초청)
⇒ 진흥구측은 우리구가 제시한 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,
단동시(상급기관)와 협의 후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겠다고 답변.

※ 이와관련 진흥구위서기 유환성 등 2명이 올해 10월경 광주 서구 방문을 강력히 희망함.

○ 진흥구 여행업계 관계와 간담회 개최 (2015. 9. 7. 16:00 진흥구청)

– 개최내용 (2015. 9. 7. 16:10 진흥구청)

- 광주홍보책자 배부(중국어판 책자형 2종, 부채[합죽선-무등산 입석대] 40개 증정)
- 임우진 서구청장 광주 서구를 알리는 홍보 인사말씀(쇼핑, 의료, 등 광주 홍보)
- 광주여행업 관계자(알프스관광 안상권)와 관광교류방안 협의
⇒ 광주 관광협회 협조로 광주 홍보 및 민간업체간 상호 교류방안 협의

III

기타지역 성과

○ 요녕성 동북아 경제문화촉진회 관계자와 간담회

- 일시 및 장소 : 2015. 9. 4. 17:00 심양 사무실
- 면 담 자 : 풍옥춘 요녕대학교 前총장, 유수지 국장, 강명추 비서장
- 면 담 내 용 : 심양 ⇄ 광주간 관광객 상호관광객 유치방안 협의

○ 요녕성 조병산시 市 인민정부 시장 면담

- 일시 및 장소 : 2015. 9. 9. 10:00 조병산시 시청
- 면담자 : 왕영리 시장, 왕우 부시장, 원대력 진장
- 면담내용 : 한국 소규모 영농기계 보급 및 증기기관차 박물관 관광객 유치 희망

○ 항일 유적지 방문

- 방문지 : 안중근 기념관, 731 부대 기념관
- 방문의미 :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 유적지 견학 및 일제 잔혹상 확인

○ 통일시대 대비 북한의 이해

- 방문지 : 압록강 대교, 압록강 탐방선 탑승
- 방문의미 : 단절된 북한의 실상을 접함으로 통일시대 북한의 이해

○ 글로벌 시대 중국의 교류 및 이해

- 방문의미 : 글로벌 시대 중국, 특히 단동만한 교류가치 도시가 없음.
(환인, 즈반, 고구려 수도, 백두산, 윤동주, 하얼빈 등)

IV 방문의 종합평가

- 휴일을 포함한 4박 5일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국제 우호교류도시 방문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. 우호교류 협약 3주년에 접어들면서 구체적 교류방안으로 청소년 문화교류, 공무원 상호교류 방문, 올 10월 당서기 간부들 방문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실질적인 교류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음. 그 동안의 두 지역간 교류가 관계를 트기 위한 단계였다면 이번 방문은 두 지역이 구체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음. 당 간부를 통해 서구와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확인했음.
- 글로벌시대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써 단동시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음. 지구촌시대, 외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

없는 시대임. 중국은 이미 우리의 경제와 정치적 우방임. 단동시 진흥구와 교류를 통해 중국의 행정과 정치체제, 사회, 문화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소득임.

- 남북 대치 현실 속에서 북한의 생활상을 확인하고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기회였음. 진흥구는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국경을 접한 지역인 만큼 북한의 실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지역임. 북한과 경제협력과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단동시 진흥구와의 교류 가치를 거듭 확인했음.
- 우리 고대 역사 및 근대 항일 역사 현장을 학습하고 확인하는 자리였음. 동북3성은 고구려와 발해 영토 물론 항일 독립군의 유적과 자취, 일본군의 잔혹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점임. 공직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과 교훈을 깊이 새길 수 지역으로써 단동의 가치를 거듭 확인했음.
- 앞으로 상호방문과 교류가 확대되어 의료관광, 차이나타운 개설, 민간 교류 활성화, 농촌교류 가능성 등 보다 성숙된 발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 등을 검토하고 발굴하는 기회가 됐음.
- 두 지역간 사고방식과 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됐음. 우리와 달리 중국은 당과 관이 주민을 주도하는 체제임. 따라서 민간보다는 당과 시, 구정부 간부들이 교류를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. 설사 두 지역간 민간교류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부나 당에 의해 일순간 문이 닫혀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깨달았음.

V

일정별 활동사항

1. '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(罪證) 진열관' 관람

가. 일 시 : 2015. 9. 6(일) 09:20

나. 장 소 : 헤이룽장(黑龍江)성 하얼빈(哈爾濱) 소재

다. 참 석 : 임우진 서구청장 외 9인

라. 주요 내용

- 1930~1940년대 일본 관동군이 자행한 생체·세균전 실험 관련, 1만 50여 점의 전쟁유물 및 전시물을 둘러보며 역사의 교훈을 배움
- 731부대 죄증진열관은 소장유물을 ▲ 부대 설립 때부터 패전으로 철수할 때까지 부대 조직 자료 ▲ 생체실험 증거 ▲ 세균전 실험 증거 ▲ 철수하면서 범죄 진상 은폐증거 등 6가지 계통으로 구분해 전시.
- 130채에 이르던 731부대 시설물은 일본군 패주 당시 대부분 폭파됐으나 본부 건물이 남아 학교로 쓰이다가 2001년부터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731부대 죄증 진열관으로 운영됨.



[사진-1] 일본군 731부대 죄증(罪證) 진열관 입구

2. 정율성 기념관 방문

가. 일 시 : 2015. 9. 6(일) 11:00

나. 장 소 : 헤이룽장(黑龍江)성 하얼빈(哈爾濱) 우의로 233호

(하얼빈시 경비구 사령부 좌이루, 하얼빈의 명동이라고 불리는
중양대로 끝부분 송화강변 가까이에 위치)

다. 참 석 : 임우진 서구청장 외 9인

라. 주요 내용

- 광주 출신으로 중국의 중국의 3대 음악가중 하나로 꼽히는 정율성 (1918~1976)선생의 인생전기를 주로 소개하며 그의 음악 업적을 재현한 기념관을 마련하여 운영중임.
- 전시관 총면적은 1,350㎡며 정율성 선생의 가족이 제공한 실물 전시품 300여점(650세트)가 전시됨.
- 전시홀은 가상공학기술과 인터랙티브터치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음악가의 문예방면의 재능의 선진 전시기법을 재현 함.
- 하얼빈시 문화국 부국장인 조선족 서학동씨가 정율성기념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함. 그는 유품들을 보관하고 있던 북경의 고(故) 정율성 선생의 딸 등 유족들을 설득하고 하얼빈 당서기의 허락을 받아 2009년 7월 정율성기념관의 개관을 이끌어 냄.
- 중국정부는 정율성을 '혁명음악의 대부', '군가의 아버지'로 기록하고 있지만, 한국에서는 그가 북한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있음.
- 최근에는 정율성 탄생 100주년(2014년)을 계기로 한중 양국에서는 기념 음악회 등 관련 행사들이 잇달아 열리는 등 그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음.



[사진-2] 기념관 내에 전시된 정율성 선생 인생전기 사진

3.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

가. 일 시 : 2015. 9. 6(일) 14:00

나. 장 소 :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다오리구 안성가 85호

다. 참 석 : 임우진 서구청장 외 9인

라. 주요 내용

- 기념관은 헤이룽장성[黑龍江省] 하얼빈시 다오리구[道里區] 안성가 [安升街]의 하얼빈역에 위치함.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[伊藤博文]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기려 건립한 기념관으로, 하얼빈시와 철도국이 공동으로 건립 비용을 부담하여 2014년 1월 19일에 개관.
- 기념관은 의거 현장 바로 앞에 있던 귀빈용 대합실의 일부를 개조하여 건립했으며, 면적은 약 200㎡이다. 기념관 내부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유필(遺筆), 손도장, 흉상과 단지(斷指)한 손을 형상

화한 청동 조각품 '거룩한 손',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결행하기까지 하얼빈에서 보낸 11일간의 행적, 체포된 뒤 뤼순[旅順]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 등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사진과 사료 등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병기된 설명과 함께 전시됨.

- 기념관 내부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'안중근, 이등박문 격살 사건 발생지[安重根擊斃伊藤博文事件發生地]'라는 문구가 새겨진 의거 현장을 볼 수 있으며,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짧은 동영상도 상영중임.



[사진-3] 하얼빈 역 귀빈실을 개조해 개관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

4. 우리구 방문단 환영 오찬

가. 일 시 : 2015. 9. 7(월) 11:30

나. 장 소 : 만달가화주점

다. 참 석 : 21명

- 우리구 : 구청장, 서구의회 의장, 운영위원장, 기획총무위원장, 복지환경국장, 총무계장, 한중문화교류중앙회장, 여행사 대표, 직원 3명 등 11명
- 진흥구 : 진흥구 진복무 구장, 양국경 상무부구장, 목문승 부구장 정부판공실, 선전부, 개발국, 상무국, 초상국, 문화여행국 국장 등 10여명

라. 주요 내용 : 오찬 및 간담

- 참석자 소개 및 친교시간

- 민간교류와 관광 등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



[사진-4] 환영 오찬에 앞서 가진 간담회



[사진-5] 진흥구 진북무 구장이 베푼 오찬

5. 우리구와 진흥구간 회담

가. 일 시 : 2015. 9. 7(월) 13:10

나. 장 소 : 단동시 진흥구 회의실

다. 참 석 : 31명

- 우리구 : 구청장, 서구의회 의장, 운영위원장, 기획총무위원장, 복지환경국장, 총무계장, 한중문화교류중앙회장, 여행사 대표, 직원 3명 등 11명
- 진흥구 : 류환성 진흥구서기, 범후성 인대상임주임, 진복무 구장, 반위동 정협 주석, 류희명 부서기, 양국경 상무부구장, 목문승 부구장, 기업가 10명 등 총 20명

라. 주요 내용

○ 단동시 진흥구와 실질적인 교류방안 협의

- 양 구간의 방문단 상견례 및 참석자 소개
 - 진복무 구장 환영인사, 우리구 구청장 인사말씀
 - 진흥구 일반현황 및 경제상황 설명 : CD 동영상
 - 우리구 일반현황 소개 및 구정 홍보: CD 동영상(중국어판)
 -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
 - 청소년 문화교류 희망(매년 20명선, 방학중 격년제 상호 방문)
 - 민간인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(관광, 경제, 경제, 문화, 농업 등)
 - 공무원 견학 편의제공 (교통, 숙박시설 할인 및 소개 등)
 - 2016년 진복무 구장 등 정부와 당 간부 서구 초청
- ⇒ 진흥구측은 우리구가 제시한 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상급기관인 단동시와 협의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하겠다고 답변

○ 진흥구 업체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

- 임우진 서구청장 인사말씀
 - 쇼핑, 의료, 관광자원 등 광주와 서구를 알리는 말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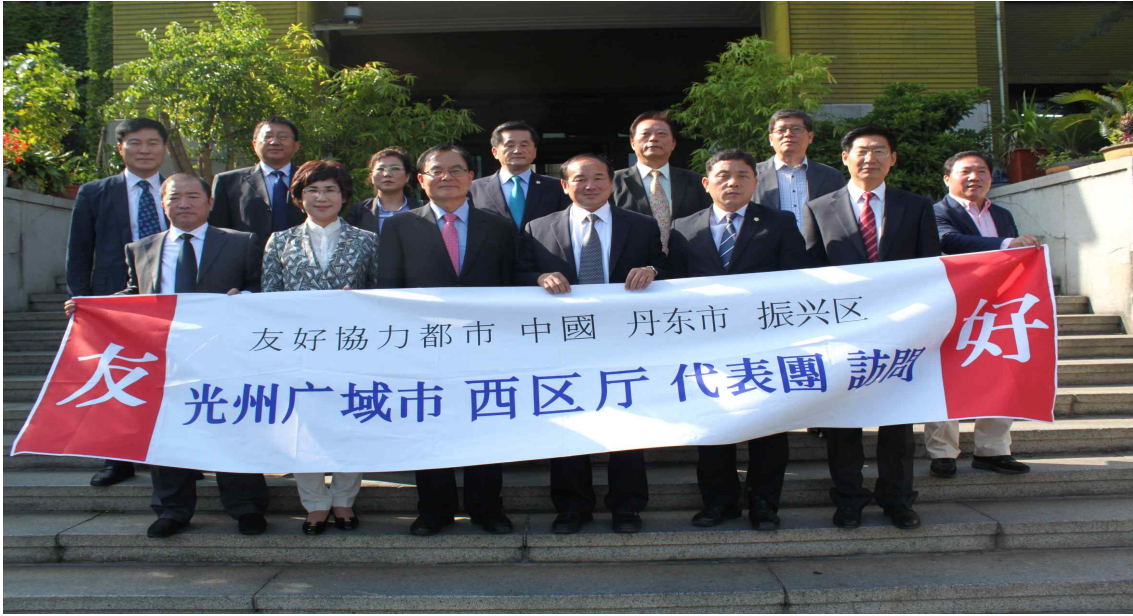
- 광주 여행업계 관계자(강원구 한중문화교류중앙회장, 안상권 알프스 관광 대표)와 관광교류 확대 방안 협의
- 광주 관광협회 협조로 광주 홍보 및 민간업체간 상호 교류방안 협의
- 광주홍보책자 배부(중국어판 책자형 2종, 합죽선 40개 증정)



[사진-6] 진흥구 회의실에서 열린 양측 대표단간 회의장면



[사진-7] 진흥구 여행업계 대표들과 회의를 마친 뒤 촬영한 기념사진



[사진-8] 진흥구 청사 현관에서 가진 양측 대표단의 기념촬영

6. 진흥구 특색 거리 참관

가. 일 시: 2015. 9. 7일(월) 14:30

나. 장 소: 진흥구 안동 노가

다. 참 석: 임우진 서구청장 외 9인

라. 내 용: 건물 내에 중국 명,청시대의 옛거리 재현

골동품에서 먹거리까지 한 눈에 중국의 전통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곳



[사진-9] 안동 옛거리 입구

7. 금강산(錦江山)공원 산책로 탐방

가. 일 시: 2015. 9. 7일(월) 15:30

나. 장 소: 단동시 북쪽에 위치

다. 참 석: 임우진 서구청장 외 9인

라. 내 용:

- 금강산 산등성이에 자리한 해발 137m의 시민공원.
- 산의 정상에는 단동시내와 압록강과 마주한 신의주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팔각정 정자인 금강정이 자리.
- 금강정에서는 매년 단동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민속축제가 펼쳐짐.
- 금강산 공원에 올라보면 단동과 신의주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음. 옛날에는 단동이나 신의주가 거의 같은 도시였다고 하지만 금강산에서 바라보면 신의주와 단동은 격차가 심함.

8. 압록강 유람선 탑승

가. 일 시: 2015. 9. 7일(월) 16:30

나. 장 소: 압록강

다. 참 석: 임우진 서구청장 외 9인

라. 내 용 :

- 한반도와 중국 만주벌을 사이에 두고 장장 802km를 흘러내리는 압록강은 국경 경계선으로 단동과 신의주, 지안과 북한 만포시의 경계임.
- 단동시 남쪽 압록강변에는 압록강을 둘러볼 수 있는 유람선 선착장 자리임.
- 강 건너에 보이는 곳이 북한 지역으로 국경수비대들과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음.
- 좁은 개울과 철조망을 하나를 국경선으로 삼아 그 너머에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평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볼 수 있음.



[사진-10] 압록강 철교에서 10km 하류에 건설된 신 압록강대교. 총 길이 3026m, 북한 쪽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개통식을 미루고 있는 상태



[사진-11] 단동 유람선 선착장에서 압록강 철교를 배경으로 기념촬영



[사진-12] 압록강 유람선에서 바라본 북한 땅

9. 우리구 방문단 환영 만찬

가. 일 시 : 2015. 9. 7(월) 18:00

나. 장 소 : 신안동각

다. 참 석 : 21명

- 우리구 : 구청장, 서구의회 의장, 운영위원장, 기획총무위원장, 복지환경국장, 총무계장, 한중문화교류중앙회장, 여행사 대표, 직원 3명 등 11명
- 진흥구 : 진흥구위서기 류환성, 인대주임 범후성, 진흥구정부구장 진복무, 정협주석 반위동, 진흥구위부서기 류희명, 진흥구 상무부구장 양국영, 부구장 목문승 상무국 직원 등 10 여명

라. 주요 내용 : 만찬 및 간담

- 만찬과 함께 참석자간 친교 시간 및 화합분위기 조성
- 경제, 문화 등 양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와 교류
- 진흥구장 및 당 간부 초청 및 답방 의지 재확인

10. 봉황산 등반

가. 일 시 : 2015. 9. 8(화) 10:00

나. 장 소 : 봉성시 봉황산

다. 참 석 : 10명

라. 내 용 :

- 단동시 서북의 57km되는 봉성시에 위치
- 봉황산은 요녕 4대 명산 중 하나로 총면적은 216km², 최고봉인 찬운봉의 높이는 해발 836m.
- 산을 둘러싼 사찰, 석각과 기타 인문경관이 아름다운 중국 산수화를 구성.
- 고구려 때 오골성이 있던 곳으로 오골성은 안시성과 함께 고구려의 요충지를 담당. 고구려 멸망 후 고연무가 고구려 부흥군을 이끌었던 지역.
- 스키장 곤돌라 같이 생긴 2인승 케이블카가 토이봉 옆까지 운행.

11. 진흥구 부구청과의 환송 오찬

가. 일 시 : 2015. 9. 8(화) 12:00

나. 장 소 : 만원반점

다. 참 석 : 21명

- 우리구: 구청장, 서구의회 의장, 운영위원장, 기획총무위원장, 복지환경국장, 총무계장, 한중문화교류중앙회장, 여행사 대표, 직원 3명 등 11명
 - 진흥구 : 목문승 부구청장, 상무국장, 정부판공실, 직원 등 10 여명
- 라. 내 용 : 양 지역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
방문단과 환송, 석별의 정 나눔
내년 진흥구 방문단을 광주로 초청, 재회하기를 희망함.



[사진-13] 진흥구 부구장과 환송 오찬

12. 요녕성 동북아 경제문화촉진회와 간담회

가. 일 시 : 2015. 9. 8(화) 17:00

나. 장 소 : 심양 호북상회 사무실

다. 참 석 :

- 우리구 : 구청장, 서구의회 의장, 운영위원장, 기획총무위원장, 복지환경국장, 총무계장, 한중문화교류중앙회장, 여행사 대표, 직원 3명 등 11명
- 동북아 경제문화촉진회 : 풍옥총 요녕대학교 전 총장, 우수지 국장, 강명추 비서장 등 6명

라. 주요 내용 :

- 호북상회 소개
- 심양과 광주간 상호 관광객 유치 방안 협의
- 서구 농촌지역과 조병산시 농촌마을과 교류 방안 논의
- 주민자치위원회 중심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



[사진-14] 임우진 서구청장 일행을 환영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새긴 심양 호북상회 입구



[사진-15] 우리구와 요녕성 동북아 경제문화촉진회간 간담회

13. 조병산시 호명진 방문 및 조병산市 시장과 면담

가. 일 시 : 2015. 9. 9(수) 11:00

나. 장 소 : 조병산 호명진 청사 등

다. 참 석 : - 우리구 : 구청장, 의장, 운영위원장, 기총위원장, 복지환경 국장, 총무계장, 한중문화교류중앙회장, 여행사 대표, 직원 3명 등 11명

- 조병산시: 왕영리 시장, 왕우 부시장, 원대력 진장, 관계 직원 등 10명

라. 주요 내용 : 한국 소규모 영농기계 보급, 증기박물관 관광객 유치 희망



[사진-16] 조병산 시장과 간담회, 기념촬영

VI. 참고자료

○ 별첨